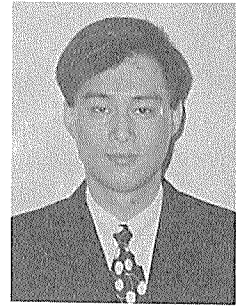


제9차 APEC 전기통신 실무그룹회의를 다녀와서



박 친 주
본회 정보산업과 대리

1. 서 론

21세기의 태평양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89년 1월 호주의 호크 수상이 서울 방문시 제창하여, 동년 11월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창설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그동안 5차 각료회담을 통해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 공동체 구상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제의에 의해 아·태지역 각국 정상들이 참가한 시애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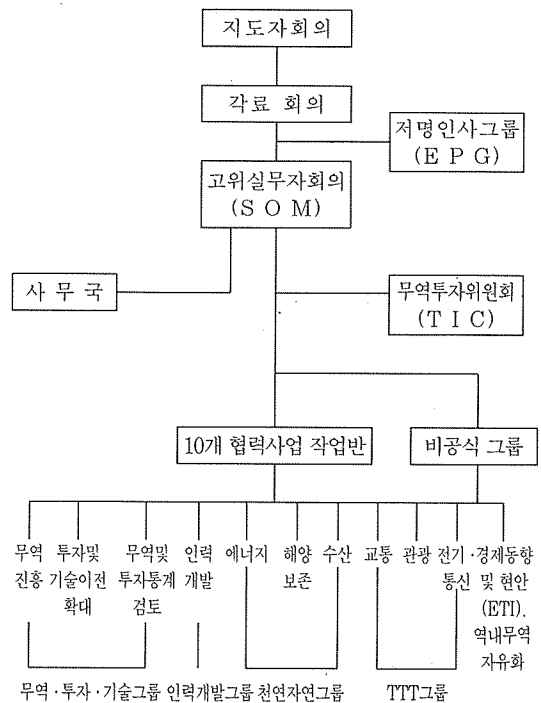
이번에 '94. 2. 28~3. 3(4일간) 홍콩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된 APEC회의는 제9차 전기통신분야 실무그룹회의로써, 아·태지역의 전기통신분야 현안을 토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 14개국의 대표 및 옵저버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체신부의 설정선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상공자원부, 한국통신, 학계, 본회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는 제4차 회의까지 체신부와 그 산하기관만이 참가하고 상공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기통신관련분야중 EDI(전자문서교환)분야는 상공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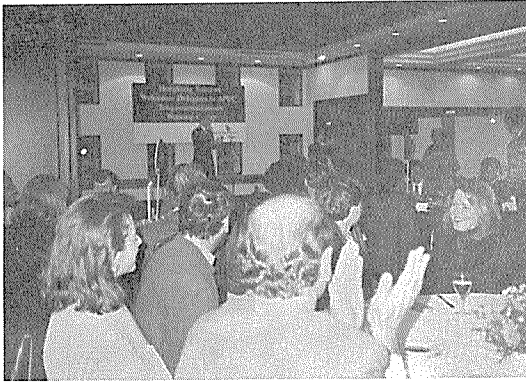
반면, APEC에서의 EDI프로젝트에는 체신부만이 참석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일관성 결여의 문제가 있었다.

일본의 통산성을 비롯해 각국에서 한국의 체널에 의문을 제기해 옴에 따라 제5차 회의 이

표 1. APEC의 구조



주: 10개 협력사업 작업반(Working Group)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부터는 상공부에서도 참석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과제별 분과회의(2/28~3/1)와 전체회의(3/2~3/3)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과제별 회의결과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 환경자료집 발간사업 (Data Compilation)

제8차 회의시 외부에 용역키로한 “아·태지역의 통신발전전략”의 연구내용에 대해 호주 및 캐나다의 제안이 있었다.

한국도 연구내용에 각국의 통신사업(자) 체계의 현황과 채택배경에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차기회의(제10차)시까지 각국은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한 후 각국의 의견을 미국에 조속히 제시하면 미국이 이를 정리하여 차기회의에 상정, 조정한 후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

나.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한국이 수행중에 있는 역내 EDI훈련시설 현황조사는 이번 회의시까지 미국·호주 등 5개 국가만 관련자료를 보내왔으므로 미제출국에 대해 조속히 응답토록 촉구하였으며, 한국은 제출되는 자료를 정리하여 차기회의시 훈련시설 현황에 관한 최종보고를 행하기로 했다.

한국이 제8차 회의시 제안한 “국제우편물 추적시스템의 개발”에 대해 각국은 APEC이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만국우편연합(UPU) 등 관련 국제기구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의사를 표명하였다.

다. 인력자원개발(HRD : Human Resource Development)

제8차 회의에서 태국이 제안한 인력교환 프로그램의 조정관으로 태국의 대표가 선정되었으며,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총 8개국이 자국의 주요임무자를 선정하였고, 미선정한 회원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명단을 APEC 사무국으로 통보토록 하였다.(한국은 체신부 통신협력과 조영국 사무관)

태국이 미국의 USTTI(U. S Telecommunications Training Institute)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총 14개항목으로 구성된 “APEC의 전기통신 훈련과정”을 제안하였는 바, '94년 4월 싱가포르에서 우선 “경쟁적 전기통신 환경에서의 관리”, “민영화의 개념 및 시각”, “재해복구 및 통신량의 분산 방안” 등의 3개항목에 대한 각국의 전문과 회의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차기회의에 보고, 동제안을 재검토키로 하였다.

라. 전기통신 하부구조 개발(TID :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Development)

제8차 회의의 합의에 따라 일본은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방안을 위한 지침서”를 보완하여 이번 회의에 제출하였는 바, 각국은 제출된 지침서의 한분야씩을 타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94년 6월까지 일본에 제출키로 하고, 일본은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여 '94년 8월까지 각국에 배포키로 하고 한국은 “통신망 구축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분야를 담당키로 했다.

또한, 캐나다는 자국이 제안한 “21C를 대비

한 통신하부구조의 개발"을 위한 계획 및 설문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보완하여 이번 회의에 제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활동 이외에도 일본 통산성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양국의 EDI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APEC 각료회의 개최 현황

| | 개최일시 | 장소 | 참가국 | 주요 의제 |
|-----|-----------|-----------|------------------------------|--|
| 제1차 | 1989년 11월 | 호주 캔버라 | 12개국 * | • UR 교섭 및 무역개발 추진 |
| 제2차 | 1990년 7월 | 싱가포르 | 12개국 | • 역내 에너지협력등 7개분야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중국, 대만, 홍콩 등의 가입 |
| 제3차 | 1991년 11월 | 한국 서울 | 12개국외에 중국, 홍콩, 대만등15개국 | • 서울 APEC 선언 채택 • UR의 연내타결을 위한 정치적 결의 |
| 제4차 | 1992년 9월 | 태국 방콕 | 15개국 | • APEC 사무국 설치 및 예산제도 도입 • 역내 자유무역 추진 |

* ASEAN 6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 국

가. 추진현황 및 계획

무역부문 EDI사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제정비)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33개 국내 외국환 취급은행 2,200여 본·지점의 내부 EDI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금융전산망과 무역자동화망 시스템간 상호연동 및 서비스를 개시('94. 1)하고 있다.

'94년 7월중 항만 물류 업무에 대한 EDI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94년 4월중 항만 물류 업무를 전담할 VAN사업자인 KLNET를 설립할 예정이다.

'94년 11월중 해상수출 통관업무에 대한 EDI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부문 이외에 자동차·철강·의료부문에 대한 전자문서개발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일 본

가. 배 경

1980년대 일본 유통회사들은 구입 주문과 승인절차의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개별절차(JCA procedure : Japan Chain Stores Association Procedure)와 표준포맷을 산업표준으로 개발시킨 후, 온라인 데이터 교환에 착수했다.

이러한 데이터 교환방법은 현재의 유통산업 EDI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 후 생산업체에서도 빈번한 소규모 주문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 EDI시스템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구축되게 된다.

1985년 각 산업분야에서 컴퓨터의 상호협력적인 사용을 위한 지침인 Guideline for Cooperative Use of Computers가 "Law on Facilita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에 따라 세워지고, 동법률을 근거로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JIPDEC)내에 산업정보화추진센터(CII)가 설치됐다.

1991년 4월 전자문서교환 표준규격(EDIF-ACT)과 유사한 'CII Trial Syntax Rule'이 각 산업들간의 공통표준으로써 제정되고, 동년 6월 CII Syntax Rule을 위한 트랜즈레이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나. 현 황

일본의 EDI는 1982년 대형 도매상인들과 일반무역회사들간의 구입주문 거래시스템(Purchase order transaction system)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유통산업에서의 구입주문과 승인시스템은 1985년이후 구축되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일본에서 VAN(부가가치 통신망)사업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EDI의 주류로써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EDI(표준포맷으로서 ANSI X.12를 사용하고 있는 EDI)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최초로 시도된 본격적인 EDI시스템은 EIAJ-EDI 시스템으로써 1987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CII-ED(표준포맷으로써 CII Syntax Rule을 사용하는 EDI)는 시스템의 확장용으로 개발, 상업화되었으며, 제조, 석유화학, 일반무

역, 전력, 전선, 건설, 철강, 주택, 전기, 전자와 관련된 산업에 도입됐다.

현재 일본에서는 초기의 EDI(산업용VAN)와 보다 개량된 EDI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개방형(사용의 확산을 의미) EDI System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EDI System은 구매주문에서 배달증명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다. 통산성의 추진내용

표 3. APEC의 협력사업 추진현황

- APEC은 아·태 지역의 상호협력 증대를 위해 주요 분야별 우선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 현재까지 무역·투자 등 10개 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 협력사업 | 간사국 | 목적 | 추진현황 |
|---------------|-------------------------------|---|--|
| 무역 및 투자 관련 통계 | 일본, 미국, 싱가포르 | 상품, 서비스 교역 및 투자관련 통계의 불일치 해소 | 상품교역통계 불일치 현황 파악 완료 |
| 무역진흥 | 한국, 말레이시아 | 무역 및 산업정보 교환, 무역진흥 세미나 및 무역진흥훈련과정 개최, 무역사절단 교환 | APEC 전산정보망 설치, 무역진흥세미나 개최, 아·태 무역박람회 개최예정(일본, 1994), 중소기업 진출 및 수출확대 세미나 개최 |
| 투자 및 기술이전 |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 투자 및 기술정보망 설치, 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 기술단지 요람 발간, 아·태 투자 및 기술정보망 설치 논의 |
| 인적자원 |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 경제개발, 기업경영, 산업기술 등 분야별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협력프로그램 추진 | 정보교환 세미나, 공동연구 추진 |
| 에너지 | 호주 | 에너지 수급관련 정보교환,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에너지수급 자료수집, 회원국간 석탄관련 환경기술이전, 역내 에너지효율현황조사, 에너지기술협력 편람 작성 |
| 해양자원 |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 위험물질 해상운송 및 육상오염원의 해양유입 규제, 해양폐기물 처리 | 해양생태계관련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적조문제에 대한 실무작업반 운영 |
| 수산 | 뉴질랜드 | 기술협력, 시장개척, 자원조사 등에 상호 협조 | 공동연구 추진, 국제협력기구 결성에 노력 |
| 교통 | 미국 | 운송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항공운송의 보완 및 안전제고 등에 관한 방안 강구 | 교통문제에 관한 기초조사, 중기전망 보고서 발간예정 |
| 통신 | 미국 | 전기통신관련 현황자료 발간, 인적 자원훈련, 전자문서 교환 | 통신관련규제에 관한 보고서 발간 및 공동연구 추진 |
| 관광 | 미국 | 관광관련 정보개선, 관광저해요인 및 촉진요인 검토, 관광요원 훈련 | 세부사업계획 수립중, 자료 수집 및 통계작성 |

통산성은 일본의 EDI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EDI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① “정보처리촉진법”(1985)에 근거하여 “컴퓨터의 보완적 이용에 관한 기본지침” 계획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산업분야에 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철강, 중고차판매, 전력, 전기, 전자, 가구 판매, 전자출판, 전자장비 제조, 자료배포, 기계, 건설, 가정용품관련 유통산업)

② MITI는 비즈니스 프로토콜에 관련된 산업간의 표준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1992년부터 산업간의 EDI Pilot Model에 관한 연구개발에 착수(예산: '92년 30만불, '93년 60만불)하였고, 특히 '93년에는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한 EDI 파일럿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③ 1992년 EDI촉진과 CII표준화와 같은 비즈니스 프로토콜 표준화사업을 육성시키기 위

한 정부차원의 차관계획을 설정했다.

④ 1992년 10월 일본전자문서 교환자문위원회(JEDIC)가 42명의 산업계 대표 등과 국제 통상부, 재무부, 통신부, 건설부 등 관련부처의 독창적인 발간(In-itiative)하에 설립되었는바, JEDIC에서는 EDI와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EDI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사업을 행하고 있다.

⑤ MITI는 일본의 대표자 자격으로서 EDI와 관련된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APEC 회의에는 세계 정보통신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정보산업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환의 하나로 본회에서 업저버 자격으로 최초로 참가하게 되었으나, 향후에도 APEC에 참가한 각국의 유관기관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본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APEC회의에의 참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관련 해외 유통업체 국내진출 현황

| 업체명 | 국별 | 진출내용 |
|--------|-----|---|
| 소니 | 일본 | 전자양판점, 한국시장 진출 타당성 완료, 강남지역 협력업체를 통해 직매장 개설한 상태(서비스센터 확대 92년 2개소, 93년 5개소, 94년 14개소 개설 예정), 공황면세점 운영 검토 |
| 샤프 | 일본 | 국내 샤프유통망(1백10개) 활용해 본격시장 참여 검토 |
| 통슨 | 프랑스 | 한국진출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해 추진중 (주)인켈과 합작으로 프라트라 판매법인 설립 |
| 조신(上新) | 일본 | 전자양판점, 한국신용유통의 하이마트와 기술무역계약 체결 |
| 라옥스 | 일본 | 한국시장진출을 목적으로 「LAOX」 상표 등록, 국내상륙 임박 |
| 일렉트로닉스 | 일본 | 전자 소매업체 2백~3백평 규모의 점포추진중 |
| 3Q | 일본 | 전자양판점, 전자랜드와 연수교환단 합의 (기타 추진중인 일본가전제품업체 : 베스트, 다이치, 소고, 마쓰시다, 산요, 히타치, 아이와, 도시바 유럽지역 : 필립스(네덜란드) 텔레폰켄(독일)) |
| 야마하 | 일본 | 국내시장 진출을 위해 91, 92년 국내시장 조사완료(피아노 전자악기) |
| 세이코 | 일본 | 삼성시계와 관계정리, 직판준비중 |